

# “무상정각·중생구제 추구”

##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 대승불교 ①



◇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개인적 성불보다는 중생 전체의 성불을 위해 지비의 실천을 강조한다. 또 중생의 윤회 속에 성불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낯설은 이나 불일치성은 물론 축생과 지옥중생의 성불도 가능한 것이다. 사진은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범종·북·목어·운판 등 사물.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특이한 이론이라도 기존의 유명한 사상의 이름을 빌려 알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이론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거나, 스승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의지 혹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고명(高名)을 빌어 새 이론에 권위를 부여하려는 목적이 있다. 보르헤스는 오전에 소수의 직제제자들에게만 자신의 내밀한 사상을 강의하고 오후에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일반론을 강의하였다 한다. 비전(秘傳)은 아무래도 극소수에게만 전해지는가 보다. 피타고라스와 플라톤도 그랬고 이집트에서 부처님도 예외가 아니다. 열반에 들기 직전 부처님은 제자들 중의 한명에게 기존에 행한 설법의 요

점에서 불이 났는데, 한사람이 열소가 끄는 '작은 수레'를 타고 혼자서만 빠져나왔다. 반면 다른 사람은 소가 끄는 '큰 수레'에 대중을 싣고 빠져나왔다. 두 사람의 행위 중 어떤 것이 더 가치있는 일인가? 해답은 자명하다. 대승불교는 신도들에게 수많은 전생(轉生)을 통하여 자신이 성불(成佛)도 하고 많은 타인들도 구원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긴 과정 중의 한 단계일지라도 이 생은 열반에 이르는 소중한 단계에 틀림없다. 이렇게하여 적멸의 지향은 생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게 되고, 비움은 곧 채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비움과 채움은 서로 상응하게 된다. 몇몇 불교사학자에 따르면 이미 아소카왕(기원전 264~228)시절부터 종파의 분열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유명한

# ‘자비실천’ ‘더불어 성불’ 강조...利他지향 보살사상

악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부처님은 지상에서 뿐 아니라 천상에서도 설법을 베풀었으며 그 비전(秘傳)은 용왕의 지하궁전에 보관되어 있었다가 기원후 2세기경에 나 가르주나(龍樹)에게 전해졌다고 한다. 여기서 대승불교가 탄생한다.

부처님이나 예수같은 옛 성인들은 스스로 종교를 창시하려고 하지 않았었다. 부처님의 목적은 업보의 윤회를 믿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소망하는 수도승들의 개인적인 해탈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모든 이의 소망이었다. 프랑스 시인 프랑크 드리슬은 그 적멸의 열반을 이렇게 표현했다.

시간과 이름과 공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생이 휘저어 놓은 평정을 가라앉혀주소서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비운다는 표현은 채운다는 표현보다 더딘 지 모르기 어려우므로이다. 모든 종교는 시대에 따른 신도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야 하고, 불교도 오랜 세월동안 깊고도 다양한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대승(大乘, Mahayana)이란 말은 '큰 수레'를 의미한다. 이와함께 원시불교는 소승(小乘, Hinayana) 즉, '작은 수레'라고 불리게 되었다. '수레'라는 용어는 다음의 비유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큰

대승과 원시불교의 기본교리는 삼법인·사성제에 기초한다  
그러나 대승은 자신의 성불 미루더라도 타인의 성불을 위한 이상향 제시

왕은 불교를 신봉했지만 신앙을 강요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종교전쟁은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교와 그 지파인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유물이다. 동양에서는 한사람이 여러 종교를 숭배해도 갈등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 곳에 여러 종교의 제단이 같이 꾸며져 있는 곳도 있다.

대승불교 이론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그 논리체계가 너무나 복잡하다는 사실이다. 긍정과 부정을 되풀이하고, 나누고 또 나누고 해서 결국 논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본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논리의 건축물을 부수기 위하여 논리의 도구를 사용(때로 남용)한다.

대승과 소승 둘 다 기본교리는 같다. 양자는 모두 삼법인(제행무상·일체개고·제법무아)과 사성제(고·집·멸·도)에 기초한다. 그런데 대승불교는(서양철학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절대이상주의다. 우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색·

상·향·미·촉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 인식된 대상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환(幻)이고, 산다는 것은 바로 꿈꾸는 것이다. 후에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꿈의 재료로 만들어졌다.  
(「폭풍」, 4막1장)

서양철학자 버클리(Berkeley)와 쇼펜하우어도 현실을 환으로 보는 철학을 전개했다. 끝없이 윤회전생을 하는 속세(Samsara)는 이미 열반(Nirvana)의 세계이다. 이것을 의식하기만 하면 우리는 열반에 이른다. 초원의 역새들(역조상생)까지도 성불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언젠가 도달할 해탈의 그날을 기다리며 육도(六道)를 윤회하는 것이다.

소수의 수행승을 대상으로한 원시불교의 서원은 다시는 다른 육체로 환생하지 않겠다고 한 굳건한 의지를 다지

고 적멸에 이르러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다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승불교의 서원은 그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성불을 미루고서라도 타인의 성불을 위해 노력하는 보살의 이상향이 불타의 이상향과 나란히 제시되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매진할 것을 권했다. 반면 대승불교는 지비의 실천을 강조한다. 복전(福田)은 팔정도 중 해탈을 얻어질 뿐만 아니라 열매와 작심 그리고 보시에 의해서도 구해지는 것이다.

천상불(天上佛)이란 개념은 플라톤식 원형(原型)개념과 유사하다. 석가모니불의 원형인 천상불의 이름은 아미타불(Amitabha)이며 '무량광명(無量光明)'이란 뜻이다. 여러 천상불은 자상에 각자 한평생의 보살과 붓다를 가진다. 초기에 원시불교의 승려들과 대승불교의 승려들은 같은 사원에서 함께 거주하며 살았다. 당연히 각각의 교의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두 교파는 서로의 이론을 정교하게 다듬어 갔다. 서로의 차이점이 두드러져서 수용하기 어렵게되자 두 교파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나름대로의 길을 걷게 된다.

편역 : 김 흥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 나의 수행일기

직장생활을 착실히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사업가가 되었다. 막상 내 일이라고 시작하고 보니 어려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판로 확보하랴 새 상품 개발하랴 등 분서주 해 봐도 일은 잘 풀리지 않고 심정과 경제적인 압박만 심해져 갔다.

일은 꼬여도 풀려나지만 사업의 현장에서 피로에 지친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쉬고 싶어도 할 곳이 없었다.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피로를 풀 곳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종교를 생각했다. 아내와 상의해서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 아내는 교회를 다니적이 없었던 터라 쉽게 적응했는데 나는 첫날부터 '여기가 아니다'란 생각에 사로잡혔다. 교회를 포기하고 생각한 곳이 절이었다. 대대로 절에 다닌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처음부터 절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아내는 여전히 교회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이런 사연으로 동네에 있는 협성사를 찾

### 민정환 (개포정밀화학 대표)



즐거움이었다. 일도 잘 되고 매사에 자신도 생겼다. '일체유심조'의 도리 속에서 나는 부처님과 인연을 소중히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불자로서의 즐거운 생활에 만족하고 지내던 어느 아침이었다. 조간신문에 따라 들어온 안내문에 눈이 갔다. 원심선원이란 곳에서 불교기초교리도 강의하고 단전호흡으로 건강도 되찾아 준다는 내용이였다.

절에도 다니고 건강도 찾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길을 발견하고 어떻게 거만 있을 수 있었겠는가. 원심선원은 고교 교사인 김홍성법사님이 낸 포교당이었다. 신도도 거의 없어 운영이 되지 않아 문닫기 직전의 상황에서 김법사님이 포교의 방편으로

## “5명 거사모임 지금은 가족법회로”

매주 사찰찾아 마음비우니 사업 자신감 생겨

은 것이 15년전의 일이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천수경) 읽고 좌정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간들이 좋았다. 그렇게 절 다니는 일에 익숙해질 무렵 어느날이 계몽산 신원사를 가보라 권했다. 절과 인연을 맺고 난 뒤부터 마음이 편하고 사업도 잘 풀려 조급의 여유가 생기던터라 신원사 가는 일이 거북할 이유가 없었다.

어느 토요일 늦은 오후에 도착한 신원사. 왠지 포근한 기운이 나를 휘감는 것 같았다. 고향이나 어머니의 품을 연상시키는 그런 포근함이었다. 법당에서 철야기도를 했다.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자 소리없이 자신의 종교를 포기하고 남편을 따른 고미운 아내와 함께 합장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다. 새벽녘까지 온 마음을 다해 관음정근을 했는데 비몽사몽간에 나는 관세음보살님을 볼 수 있었다. 전설같은 일이라 그다지 알리고 싶지 않지만 나는 그 날 기도 이후 나도 한사람의 수행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스스로 자부했다.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신원사를 다녔다. 건강이 좋지 않았으므로 신원사행은 더욱 필요했던 것이다. 기도하는 즐거움은 삶의



건강문제를 사용한 것이었다. 단전호흡을 하고 기초교리도 배우는 가운데 나는 그간의 내 수행이 그저 나의 안위만 갈구하는 수행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5명의 법우들이 원심선원을 찾는 도반의 전부였다. 전생부터의 인연이 지중했던지 다섯사람 모두가 나와 같이 속 좁은 수행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화곡동 일대는 불교포교의 황무지였다. 그곳에서 불법을 전하자는 의지를 모으는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법사님을 중심으로 거사법회를 키우기 시작했다. 가까운 친구들을 모으고 친척들을 불렀다. 매주 일요일마다 법회를 하고 석달에 한씩 성지순례도 갔다. 처음의 다섯명이 5인이 지난 지금은 일곱배가 넘는 회원으로 늘어나 법당이 꽂히는 일요일법회가 됐다. '남편들만 모여서 북받느냐'는 아내들이 늘어나 거사법회를 신도회로 고치고 가족이 다 오는 법회로 바꿨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어린이 법회도 생기게 됐다. 이제 나는 일요일법회와 법우들의 애경사를 행하는 일요일법회 모임이 되었다. 그 바쁜 가운데는 늘 생활불교의 실천자가 되자는 다짐이 함께한다.

##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00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부 •야간부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도 가능)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4년	•통신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중 국 어 과	2년	•주간부 •야간부	•본교 소정 입학시험 1통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부	•주민등록증 1통	
신원법승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부 •통신부	•반명함판 사진 5매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대학,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불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불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준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원방송)과 개설  
93. 8 불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불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제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8월 22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문 1점 제출)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대진문경서적 : 252-8558, 부산불교서적전시장 : 632-7393,  
대구제일서적 : 424-0801, 마산학부당 : 46-2925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부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 511-1080

## 중국 명문 한의대 고급과정 연수

### 침·기공 연수

연 수 대 학 : 남경중의약대학  
대 상 : 한의사,한약사,침·기공에 관심 있으신 분  
기 간 : 8박9일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간염, 좌골신경통, 침치료, 비만치료 기공등  
연 수 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수료증 수여  
인 원 : 15명 이내  
출 발 일 : 1996년 8월 15일 (목)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문 의 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2026-8

## 양도합니다

사찰을 운영하고자 하는 신심깊고 능력있는 불자님들께 사찰을 양도합니다.

\* [1] 여주에서 2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대형버스 마당까지 진입할수 있도록 포장 완료 수현원 및 노후 복지시설로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전원속에 편만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자립 능력 구비 쾌적한 자연환경과 산수가 조화를 이룬 명당

현재 사찰, 행정고시원 및수현원으로 -이용중

- 부 지 : 10,344평
- 건 축 물 : 총평수 354평
- 위 치 : 경기도 여주읍에서 25분 거리
- 금 액 : 7억

\* [2] 서울소재 서울 도심지 소재 교동외종심지, 포교원으로 좋은조건을 갖추고 있음

- 창 건 : 약 10년
- 대 지 : 90여평
- 건 물 : 160여평(3층빌딩)
- 금 액 : 8억

사찰이 있어서 계속 사찰을 운영하기 어려운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02) 233-2500  
0338) 71-8210, 011-279-4600